

白鷗 백구

沙白鷗白兩白白
사 백 구 백 양 백 백
不辨沙白與白鷗
불 변 사 백 여 백 구
漁歌一聲忽飛去
어 가 일 성 홀 비 거
然後沙沙復鷗鷗
연 후 사 사 부 구 구

흰 갈매기

흰 모래 위에 흰 갈매기 모두가 희니
어느 것이 모래이고 갈매기인가.
김지기 어부의 노래 소리에 갈매기를 날아가니
모래는 모래대로 갈매기는 갈매기대로.

시원스럽게 펼쳐진 백사장, 자세히 살펴보니 흰 모래 백사장 뿐 아니라 흰 모래 위에 흰 갈매기들이 무수히 앉아 있어 흰 모래와 흰 갈매기를 분별할 수 없다. 여기(漁歌)에 놀라 날아오르는 흰 갈매기와 남아 있는 흰 모래를 재미있고 생동감 있게 묘사한 글이다.

沙白(사백) : 흰 모래.
白鷗(백구) : 흰 갈매기.
漁歌(어가) : 어부의 노래. 고기잡이할 때 부르는 노래.

夏雲 하운

一峰二峰三四峰
일 봉 이 봉 삼 사 봉
五峰六峰七八峰
오 봉 육 봉 칠 팔 봉
須臾更作千萬峰
수 유 경 작 천 만 봉
九萬長天都是峰
구 만 장 천 도 시 봉

여름 구름

한 봉 두 봉 서너 봉우리
다섯 봉 여섯 봉 일곱 여덟 봉우리
잠시 동안에 다시 천만 봉이 되니
구만장천이 온통 구름 봉우리로다.

여름철 구름의 형상이 한 봉 한 봉 피어올라 순식간에 천만 봉우리
가 되는 구름의 변화를 묘사한 시이다. 김립의 시에는 ‘죽(竹)’,
‘역(翼)’, ‘난(難)’, ‘월(月)’의 끝 글자마다 같은 시가 있는데 이 시에
도 ‘봉(峰)’자를 끝 자마다 넣어 간결하면서도 속도감 있는 시의 묘
미를 느끼게 한다.

수유(須臾) : 잠시. 순간.
구만장천(九萬長天) : 팔없이 높고 넓은 하늘을 이르는 말.

貧吟

世今隨富不從貧
誰記山村冷瘦人
唯有乾坤無厚薄
寒門茅屋亦生春

☞ 乾坤無厚薄，草木自榮衰。薔薇花一叢獨死不知其故因有是篇（唐·白居易）

高麗寶文閣直提學曹公祭壇碑 庚申

고려 보문관 직제학 조공 제단비 경신년(1920)

高麗奉常大夫寶文閣直提學青丘堂曹公諱繼芳。政堂文學昌城君匡漢之子也。按輿地勝覽。公登第官至直提學。退居鄉里。安貧樂道。

有詩曰

世間從富不從貧。誰記江村冷瘦人。惟有乾坤無厚薄。寂寥茅屋亦青春。

一面疎籬是我家。春來不隔四山花。粉牆丹柱何能久。坐愛庭中月色多。

徐四佳東人詩話。亦載公詩一首云

敲門宿客直須麾。勿使山家奇事知。屋角梨花開滿樹。子規來叫月明時。

味此三詩。則公之以詩名於當世可知。而清雅恬退之意。見於言外。勝覽所稱安貧樂道之說。爲不虛矣。而譜乘則云公當紅賊之亂。從恭愍王于福州。回至拱北樓。和詩以進。與錄扈從之勳。既而退歸故山。元雙梅松壽贈詩以美之。入李朝屢徵不起。終于家。然考之麗史恭愍紀。列書諸臣而公名不一見焉。譜乘所記。蓋未可信也。

조공첩(曹兢燮), 《암서집(巖棲集)》 제26권 / 비(碑)

貧富

富人困富貧困貧
飢飽雖殊困則均
貧富俱非吾所願
願爲不富不貧人

김상현

다락 俗音 (이후에서 나온 것) (이제서야 알게 된 것) (이제서야 알게 된 것) (이제서야 알게 된 것)

朝地官

(風水先生本是虛 指南指北舌翻空 青山若有公侯地 何不當年葬翁翁)

風水先生은 본래 거짓사
指南은 북을 가리키고
青山은 공후의 땅이
翁翁은 이 땅의 주인

墓爭

以士大夫之女 臥於父祖之間 付之於祖乎 付之於父乎

사대부의 여인으로
아버지와 할아버지 사이에
할아버지에게 묻어줌과
아버지에게

朝地師

可笑龍山林處士 暮年何學李淳風

가산경나 은산의 김 처사는
저녁에(노년에) 어찌 이순풍의 풍수를 배워라

雙眸能貫千峰脈 兩足徒行萬壑空 顯顯天文猶未達 漠漠地理豈能通 不如歸飲重陽酒 醉抱瘦妻明月中

두 눈으로는 천봉의 기맥을 꿰뚫어
두 발로만 만능 만능의 공허한
눈에 밝히 드러나지 않은 천문은 아직
막막한 리라는 어찌 알 수 있었겠는가
중과가 풍수학만 배워서
노이 취해 다쳐 죽어가는 단방이 끊어지고
노년만 불꽃

*

지사만

俗音 = 다락

山所訴狀 掘去掘去 捉來捉來 本日守之 例題 此頃彼頃 寂寞江山今百年

掘去掘去 被隻之恒言 捉來捉來 本守之例題 此頃彼頃 寂寞江山今百年

風水는 山川·水流의 모양을 인간의吉凶禍福에 연결시켜 설명하는 사상으로, 이것을 체계화한 학설을 풍수설 또는 풍수지리설이라 한다.

풍수지리는 墳墓·寺刹·道觀·주거·촌락·도성을 축조하는 데 있어서 災禍를 물리치고 행복을 가져오기 위하여 지상(地相) :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에, 집터의 형세를 관찰하여 길흉을 감정하는(일)을 생각하는 데 있다. 이는 風水相地라 하여, 풍수 지리에 따른 방위를 靑龍 : 동·朱雀 : 남·白虎 : 서·玄武 : 북의 4가지 동물로 나누어 '風'이나 '水'의 樣相을 보고 構築物의 위치를 정하였다.

보통 背山臨水의 지형을 길지라 하여 북쪽에 산을 등지고 열린 남쪽을 먼하게 배치하였으며 고택의 주요 구조물 방향을 남향, 남동향으로 정하였다.

이와 같은 풍수지리는 주거풍수인 지상의 양택풍수와 묘지풍수라 불리는 음택풍수로 나뉘어 있는데, 전통가옥의 입지와 가옥구조의 배치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酒菓腸

산악의 아름다움

풍수설의 아름다움

산악의 아름다움

金剛山

松松栢栢岩岩廻

水水山山處處奇

入金剛

緣青碧路入雲中

樓使能詩客住第

龍造化含飛雪瀑

劍精神削插天峰

仙禽白幾千年鶴

澗樹青三百丈松

僧不知吾春睡腦

忽無心打日邊鐘

妙香山詩

平生所欲者何求

每擬妙香山一遊

山疊疊千峰萬仞

路層層十步九休

九月山峰

昨年九月過九月山

今年九月過九月山

年年九月過九月山

九月山光長九月

賞景

步二步三步立

山青石白間間花

若使畫工模此景

其於林下鳥聲何

答僧金剛山詩

百尺丹岩桂樹下

柴門久不向人開

今朝忽遇詩仙過

喚鶴看庵乞句來

轟轟尖尖怪怪奇

人仙神佛共堪凝

平生詩爲金剛惜

詩到金剛不敢詩

詩到金剛不敢詩

詩到金剛不敢詩

詩到金剛不敢詩

詩到金剛不敢詩

詩到金剛不敢詩

詩到金剛不敢詩

시각상
의미
가장
중요한
부분
이다

가시
시각
상
의
의미
가
중요
하다

가시
시각
상
의
의미
가
중요
하다

가시
시각
상
의
의미
가
중요
하다

유명한 관광 명소
은사로 유명하다

라산에 들어가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평생에 하려던 바는 이제 이루어
가다

이런 모험산에 한번
보러 갔더니
산의 아름다움이 감동적이다

같은 곳이면 반사광이
9번재까지 뒤늦게

지난 9월에 귀향은 지났고
귀향을 지나오다

9월의 경이

강: 두는 사적은 건이 명위서다
산: 푸르른 푸른 하얗고
꽃이 피어있네

만약 화공의 그림을 이 경치는
그림이라고 한다면
그림에 새겨진 어찌하리
(그림에 새겨진 어찌하리)

還甲宴

彼坐老人不似人
疑是天上降真仙
其中七子皆爲盜
偷得碧桃獻壽筵

元生員

日出猿生原
貓過鼠盡死
黃昏蚊簷至
夜出蚤席射

難避花

青春抱妓千金開
白日當樽萬事空
鴻飛遠天易隨水
蝶過青山難避花

妓生合作

金笠 平壤妓生何所能
妓生 能歌能舞又詩能
金笠 能能其中別無能
妓生 月夜三更呼夫能

沃溝金進士

沃溝金進士
與我二分錢
一死都無事
平生恨有身

窓

十字相連口字橫
間間棧道峽如巴
隣翁順熟低首入
稚子難開舉手爬

白湖 林悌 1549~87

留別成而顯

出言世謂狂
緘口世云癡
所以掉頭去
豈無知者知

閨怨詩

十五越溪女
羞人無語別
歸來掩重門
泣向梨花月

山寺詩

半夜林僧宿
重雲濕草衣
巖扉開晚日
棲鳥始驚飛

戲題

日暮銀橋迴
閑愁客裏多
青樓人不見
雨濕石榴花

寒雨歌

北天이 맑다 해서 雨裝없이 길을 나섰더니/
산에는 눈이 오고 들에는 찬비로다/
오늘은 찬비 맞았으니 얼어 잘까 하노라 白湖

어이 얼어 자리 무슨 일로 얼어 자리/
鴛鴦枕 翡翠衾을 어디 두고 얼어 자리/
오늘은 찬비 맞았으니 녹아 잘까 하노라 寒雨

相好呼應詩

窓白羲皇月(일)
軒清太古風(임)
錦衾誰與共(일)
客枕一隅空(임)